

농업인의 날

이 성 행(목사, 강원 화천 신대순복음교회)

본문 : 약 5:7

제목 : 땅에서 나는 열매를 바라는 농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본문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지난 봄에 저희 교회 나오시는 집사님 댁에서 진돗개 한 마리를 드릴테니 오셔서 맘에 드는 것으로 골라 가시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집사님댁에 가보니 진돗개 순종인데 강아지는 모두 네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강아지가 우리 집에 온 뒤로 세 번을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두 번은 이웃집과 우리 집에 있는 큰 개에게 물려 거의 다 죽다 살았습니다.

그 후 이 강아지는 잘 자라다가 그만 또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당시 유행하던 파보라는 병이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병에 걸리면 얼마나 지저분한지 모릅니다. 토하고 설사하고…… 약국에 가서 증세를 말하면서 약을 달리고 했더니만 그 병에 걸리면 아무리 약을 써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방이 최고인데 이미 병에 걸렸으니 약을 가져가도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약을 사다가 주사를 맞히고 병에다 설탕물을 타서 억

지로 먹었습니다. 정말이지 돈을 주고 사온 것이라면 그대로 죽게 내버려두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집사님이 선물로 준 것이기에 지저분함을 무릅쓰고 사모도 거들며 억지로 먹이고 주사도 맞혔습니다. 또한 아픈 강아지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던 강아지가 이제는 제법 커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강아지가 죽었더라면 집사님에게 면목이 없었을 것인데 그래도 세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며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 인하여 선물로 주신 집사님에 대한 최소한의 체면 유지는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 강아지를 돈주고 사온 것이라면 그렇게까지 정성을 기울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선물로 받은 것이기에 더욱 소중하게 돌보았던 것입니다.

11월 11일이 농민의 날이라고 합니다. 사실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저는 농촌에 와서 사역한지 만 6년이 되었지만 농민의 날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몰랐습니다. 아니 알았어도 아마 무관심하게 지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농촌과 목회』 편집부에서 농민의 날에 대한 설교를 부탁 받았을 때 비로소 농민의 날이 제 가슴에 다가 왔습니다.

우선 농부 하면 농사를 짓는 사람을 말하죠. 뭐 달리 표현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땅입니다. 그런데 농부만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 수 있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직업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은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농부는 땅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땅에서 살아야 하고 땅을 일구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농사도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지순례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갔을 때 우리가 받은 은혜와 감동은 한마디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기록된 현장이 그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땅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비롯하여 온 세상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시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니 물이 나뉘게 되었고, 땅이 드러나라 하시니 땅이 드러나고 각 종류대로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말씀그대로 되었습니다. 해와 달과 별도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현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이루어진 그 땅에서 인간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곳은 에덴이었습니다. 그 에덴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사탄의 말을 듣게 되었고, 아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여자 즉 사람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하나님과 단절된 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계약이 파기된 것입니다. 말씀은 곧 언약이고 계약인데 이 말씀을 어기고 말씀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불쌍한 인간을 그냥 멸망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길이 구약에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로 나타났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하고 말씀하셨

고,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그분의 숨결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천지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는 천지만물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 23-24절에서 “제자들을 돌아 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의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가진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즈음에는 환경농업이나 유기농업으로 농사를 짓는 농민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땅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 신대리도 강원도에서 환경농업 시범마을로 선정이 되고 교회 집사님들을 주축으로 유기농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오리 농법을 이용한 쌀농사를 짓는 것이고 유기농 고추라든지 감자, 콩 등 여러 가지를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어져 왔습니다. 강원도에서 평가하기를 다른 마을에서는 십 수년이 지나도 이루어지기 힘든 성과가 신대리에서는 불과 수년 내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환경농업 작목반장인 안수집사님을 중심으로 교인들이 주축이 되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일을 하다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일이 너무나 잘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유기농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물론 성공한 분들도 많지만 실패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유기농을 하게 되면 대부분 실패를 한다는 것입니다. 성공한 분들의 대부분의 경우는 예수를 믿는 분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농사를 지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돈이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땅을 회복하기 전에 말씀을 회복하는 일이 먼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귀기울일 줄 아는 농부가 복된 농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우리 인간은 농사를 짓고 땅을 일구며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28-29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28절에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은 다스리라 하였고 29절에서는 땅의 모든 씨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식물로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범죄하여 에덴에서 쫓겨 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3장17-19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땅을 일구고 땀을 흘리며 수고하여야 식물을 먹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땀을 흘리지 않고 식물을 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가서 한 일도 고센 지역에서 농사하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서 한 일도 농사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 때도 보면 많은 경우에 있어서 농사짓는 것이라든지 땅과 관련하여 비유를 들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잘 관리하고 못하고 땅을 혹사시키거나 땅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 퍼머컬처 한국학교가 개설되어 1기 교육이 있었습니다. 60여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교육을 받았는데 거기에는 유기농을 하는 농민도 있었고, 조경을 전공하는 대학원생이라든지 귀농을 결심한 사람들 또는 학교 교사와 고등학생들 그리고 마을에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까지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참으로 유익한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교육 내용은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지속가능한 생태 마을로 바꾸기 위한 방법과 대안들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농사를 짓되 친환경적으로 유기농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건물을 짓더라도 환경을 생각하고 인간의 건강을 생각하는 건물을 짓자는 것이었습니다. 즉 지구를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고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교육 중간에 교육받는 것에 대한 소감을 발표하라는 강사의 말에 따라 한사람씩 돌아가면서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 중에 한사람이 한 말씀이 너무 기억에 남습니다. 그분의 말인즉 “지금까지 지구 환경이나 사람의 건강을 생각하지 못하고 너무나 많은 만행을 저질러 왔다. 그런데 이 교육을 받고 부터는 지금까지의 삶을 반성하고 친 환경적으

로 농사를 지어야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분은 자기가 한 일을 만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에다 온갖 만행을 저지르면서 살아왔습니다. 농사를 짓되 좀더 많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다량의 화학적 비료와 농약, 제초제를 사용하여 땅을 죽이고 인간을 죽이는 일을 해 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잘 관리하는 모습이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선물로 받은 진돗개가 세 번씩이나 죽을 위험을 겪었지만 정성껏 돌봐서 살린 것은 돈을 주고 산 내 것이 아니라 선물로 받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는 선물로 받은 이 땅을 관리해야 할 청지기의 사명만 있는 것입니다.

땅에 씨앗을 뿌린 자는 관심을 갖는다.

저희 마을은 시골이라 주변에 많은 농토가 있습니다. 마을 앞으로는 논이 펼쳐져 있고 뒤편으로는 밭들이 시원스럽게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우리 마을이 새 농어촌 건설 운동을 하면서 모든 유희지에다가 호박을 심는다든지 콩을 심는다든지 해서 놀리는 땅이 없습니다만 예전에 가끔씩 보면 농촌 인구가 고령화되다 보니까 노인 분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만 농사를 짓고 놀리는 땅이 군데군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아무리 노인이라 할지라도 봄에 씨앗을 파종한 땅은 아무리 힘이 들어도 열심히 김을 매고 가꾸는 것을 보았습니다. 반대로 씨앗을 뿌리지 않은 곳은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곳에 어떤 잡초가 올라와도 누가 와서 짓밟아도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씨앗을 뿌린 곳에만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땅위에 생명의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그 생명의 씨앗들이 잘 자라 마지막 추수 때에 알곡으로 거둬들이기를 고대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매한 인간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 그만 하나님의 관심을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하

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와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어 생명의 씨앗을 파종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끝까지 하나님의 씨앗을 거부했고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고 때리며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인간을 사랑하셔서 최고의 희생을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들의 희생으로 나타났습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못박아야 하는 최고의 희생이요 마지막 방법이었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완전한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역사 이래 이 땅에서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이 땅에 뿌려진 생명의 씨앗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교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즉 교회에 이런저런 모양으로 많은 씨앗을 뿌린 사람이 교회에 관심을 많이 갖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많이 심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많은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심어야 합니다. 믿음을 심어야 하고, 사랑을 심어야 하고, 물질을 심어야 하고, 희생을 심어야 하고, 봉사를 심어야 하고, 충성을 심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심는 것에 대해 인식한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어떤 목사님들을 보면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조를 해도 현금하는 일에 대해서는 설교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질에 대해 부담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목사님이 십일조나 감사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면 우리 목사님은 물질을 너무 강조한다고 뒤에서 수군수군대며 시험이 들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는 일까지 있습니다.

십일조야말로 하나님 앞에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수입의 십

분의 일은 반드시 내 것이니 내게로 돌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곳이 말라기서 3장 8절인데 “사람이 어찌 하
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
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헌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0절에서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구약
이나 신약 성경 수많은 곳에서 십일조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십일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
을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도적질이란 단어보다 더
강력한 어조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강도질이란 것입니
다. 왜냐하면 도적질은 대부분 사람이 보지 않는 데서 훔쳐 가
는 것을 말하고 강도는 사람이 뻔히 보는데서 사람을 위협하고
빼앗아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일조를 떼어 먹을 때 하나님이 안 보는데
서 떼어먹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뻔히 보는데서
십일조를 떼어먹지 않습니까? 이게 강도질이 아니고 무엇이겠
습니까?

다시 한 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존경하고 사랑하는 수많은
목사님들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것을 강도질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들어야지
돈 이야기를 한다거나 물질을 강조한다고 해서는 안될 것입니
다. 시험들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
님 앞에 드리므로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의
창고에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
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수지맞는 사업입니까?

하나님 앞에 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들

이유도 없습니다.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희생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바로 우리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을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저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심는 일을 게을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은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을 농부된 우리가 헤아리지 않으면 누가 헤아리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품고 농사를 짓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농부는 반드시 결실을 거둘 때가 온다.

우리는 가을이 되면 어떻게 변하는 황금들판을 바라보면 지난 여름동안의 수고는 다 잊어버리고 오로지 수확의 기쁨만을 누리게 됩니다. 지난봄 우리는 90년 만에 찾아온 가뭄을 참으로 열심을 다해 모든 수고와 아픔을 감수하며 슬기롭게 극복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실을 바라보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해 보다는 더웠던 여름을 수고와 땀을 흘리며 논밭을 돌봤습니다. 땅에서 나는 열매와 실과를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비 바람도 이기고, 태풍도 이기고, 뜨거운 태양도 이기며 오로지 추수할 날을 고대하였습니다.

이제는 말씀대로 열매를 받는 시기입니다. 추수 때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6절은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 (약 5:7)에서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들판의 곡식을 추수하면서 우리 영혼의 추수 때를 생

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곡식은 봄부터 여름까지 평소 땅의 영양분을 잘 빨아먹고 병충해를 이겨야만 추수 때에 알곡으로 남아 주인의 곡간에 들여지게 됩니다. 반대로 쭉정이는 모아다가 불에 태워 버리고 맙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받아 그 힘으로 병충해를 이기며 마지막 영혼의 때에 속일 짝 차고 충실한 알곡이 되어 하나님의 천국 창고에 들여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이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농부 여러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땅을 인간의 바벨농약으로 망가뜨리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땅을 회복시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고 우리의 후손이 사는 길입니다.

또한 땅의 회복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야 우리의 영혼이 살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최고의 희생인 자기아들 예수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씨앗을 뿌림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계심을 보여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에 씨앗을 뿌리는 것을 대해 인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뿌린 자는 관심을 갖고 살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최고의 관심을 갖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뿌린 자는 반드시 결실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영적 영양분을 잘 먹고 모든 시험 환난을 이기며 하나님 앞에 알곡으로 설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